

리모주, 프랑스

릴리앙 베탄쿠르 재단은 리모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과제로 개발된 '아오츄기 혁신 프로젝트'에 상을 수여했다.



베탄쿠르 술러(Bettencourt Schueller) 재단은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추구하며, 프랑스의 성공과 영향력에 기여하고 있는 가족 공익 재단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재단은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고 선발하며 지원하고 장려한다. 생명과학, 예술, 포용사회는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세 가지의 관련된 분야이다. 더 나아가 박애 정신에 바탕을 둔 베탄쿠르 술러 재단은 그 목적에 맞게 상을 주고, 기부하고,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릴리앙 베탄쿠르(Liliane Bettencourt)의 “손의 지성(intelligence of the hand)”상은 공예분야의 전문성, 창의성 및 혁신성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이 상은 프랑스 공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표가 되었고, 또한 프랑스 공예의 영향력과 열정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이 릴리앙 베탄쿠르

상에는 세 가지의 차별화된 독특한 상이 있다: 탁월한 재능(talents of exception), 대화(dialogues), 그리고 여정(itinerary).

이 중 '대화(Dialogues)'라고 하는 것은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거의 완성된 프로토타입 또는 수작업의 전문성과 디자인 창의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전문성과 상상력의 완벽한 혁신적 조합을 이루는 것이다.

2021년에는 릴리앙 베탄쿠르의 '손의 지성' 상-'대화(Dialogues)' 부문에서 피에르 아퀴에(Pierre Arquie)라는 리모주의 도자기 공장의 장인인 그레고리 로젠블라(Grégory Rosenblat)씨와 두 명의 디자이너 니콜라스 렐리에브르(Nicolas Lelièvre)씨와 플로리안 브릴레(Florian Brillet)씨가 수상하였는데, 그들은 아오츄기(AOTSUGI)라고 불리는 독창적이고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리모주 유네스코 창의 도시 선정 과제로 개발된 아오츄기(AOTSUGI) 프로젝트는 어떤 물체에 라도 금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일본 긴츄기(Kintsugi)





예술 공정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도자기들로 공공 장소를 정비한 사업이다: Le bleu de four(번역: 오븐에서 나오는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 에나멜 도자기처럼 보임).

리모주 시는 공예를 도시의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문화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열정적인 예술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의 주요 부분인 아오츠기 프로젝트는 프랑스 지방 문화청 (French Regional Agency of Cultural Affairs)의 지원을 받아 리모주 최초의 예술 공공 구매를 통해 시행되었다.

"문화와 도시화, 창의성이 융합된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는 도자가 공공 장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라고 도시화를 담당하고 있는 리모주 부시장 빈센트 레오니(Vincent Léonie)는 설명한다.

"아오츠기 프로젝트는 리모주 도심 전체에 4km에 걸쳐 17점의 도자기 작품들을 영구적으로 설치한 도시 순회 설치 작품이다. 각 도자기들은 배수로, 도로 포장용 자갈, 골동품 화병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파손된 도시의 부품들을 보수하고 채우기 위하여 그 위치가 정해졌다. 어떤 작품은 눈에 띄지 않거나 의외의 장소에 설치되기도 했다. 모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니콜라스 펠리에브르, 플로리안 브릴레, 그리고 그레고리 로젠블라는 도자기를 훌륭하게 승화시켜 도시의 대중들에게 선보였다"고 부시장이 덧붙였다.

두 디자이너와 도자기 공예가는 도시 전역에 지역 도자기의 전문성을 전파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주목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아오츠기 프로젝트는 단지 강제적으로 도시를 순회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점을 뛰어넘어, 도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청하는 원 샷 초대장이다.

Stephanie Riado

(Head and Focal Point, Limoges)